

법철학과 유가사상 기말 시험 - 2022.6.9

- 시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답안은 6월10일 14:00까지 <https://lawlec.korea.ac.kr/essay> 사이트에서 “법철학과 유가사상” 과제물 “3”으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분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래 두 문제 모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답안 내용 자체에는 자신의 이름이나 전공 과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 인(仁)에 대한 다음 두가지 설명을 비교 검토하고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시오.

논어:

-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굳세고, 단호하고, 투박하고, 말도 별로 없는 것. 이게 仁에 가까워.” 子曰：「剛毅、木訥，近仁。」(子路 13.27)
- “오직 仁한 자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 「唯仁者能好人，能惡人。」(里仁 4.3)

춘추번로(동중서 지음):

- 仁은 슬픈 심정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조심하여 화합하는 심정으로 다투지 않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도리에 맞게 하며, 싫어하는 마음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꺼리는 마음을 몰래 품어두지 않으며, 질투하는 기운이 없고, 원망하는 욕심이 없고, 음험하고 교활한 처사가 없으며,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편안하고, 그 의지는 평화로우며, 그 기분은 온화하고, 그 욕망은 절제되어 있으며, 그 일처리는 수월하고, 그 행동은 도리에 맞다. 그렇기 때문에 평온하고 수월하며 온화하고 이치에 맞으므로 싸울 일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仁이다. (必仁且知 2)

문제 [2] 다음 귀절을 참조하여 예법(禮)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군자가 문물을 폭 넓게 배우고 예법(禮)으로 자신을 제약한다면 선을 넘지는 않겠지!” 子曰：「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雍也 6.27) (顏淵 12.15)

위 두 문제 모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